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구두쇠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구두쇠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구두쇠

완성된 이름

구두쇠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구두쇠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구두쇠	☒	☒	☒
굳오쇠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10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9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구두쇠'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 구두쇠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구두쇠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구두쇠 사전 표기 요약	—	—	—	—	●→	●→
굳으쇠 문헌 수록 표기	—	—	—	—	●→	—
굳으쇠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구두쇠
19세기20세기현재
- 굳으쇠
20세기

↳ 구두쇠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구두쇠’는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말의 구성과 어원

‘구두쇠’는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 인색하다를 뜻하는 ‘굳-’과 남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는 ‘-쇠’가 결합한 것이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굳쇠가 아니고 ‘구두쇠’로 나타난다. 이 외에 19세기에 ‘굿으쇠’와 20세기에 ‘굳으쇠’도 나타난다.

🔗 표기 방식과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는 받침의 ‘ㄷ’이 ‘ㅅ’으로 표기되어 이에 따라 ‘굳다’가 ‘굿다’로 나타나면서 보이는 형태가 ‘굿으쇠’이다.

📖 문헌 속의 구두쇠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구두쇠, 굿으쇠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구두쇠, 굿으쇠

출처 1896 국한회어 곤:36

용례 01

66 문헌 용례

구두쇠 吝嗇者.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294

용례 02

66 문헌 용례

굳으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구두쇠, 굳으쇠 용례 8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구두쇠, 굳으쇠

출처 1908 설중매 23

용례 03

66 문헌 용례

구두쇠가 품에서 치부척을 니야 노흐며 서방님 이것 좀 보시오 처음 오실 씨에 한 달에 오 원 오십 전식 후는 밥값을 특별히 오 원식 작덜하고 정결한 처소를 가리어 드렸더니.

현대어 풀이

구두쇠가 품에서 치부척을 내어 놓으며 서방님 이것 좀 보시오 처음 오실 때에 한 달에 오 원 오십 전씩 하는 밥값을 특별히 오 원씩 작정하고 정결한 처소를 가려 드렸더니.

출처 1908 설중매 78

용례 04

66 문헌 용례

쥬인 구두쇠가 전지에는 인식후나 사름은 직심이라.

현대어 풀이

주인 구두쇠가 재물인 돈에는 인식하나 사람은 정직하다.

출처 1920 동아일보 4월 23일 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여보 이 친구 돈을 좀 쓰내시오 쓰내요" "그럼 안 주고 박이겟소" "원테 구두쇠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4 개벽 제49호

용례 06

66 문헌 용례

아모리 구두쇠 閼大감이라도 海州집이 해주오-해주오 하는 데는 다 녹는 모양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조선일보 11월 8일 3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이건 구두쇠로구료! 젊은이가 이마빡이 그러케 차돌가티 구더서야 사내 대장부는 안이로구료! 이원이 무얼 만허요! 자—그럼 사분의 일만 덜 밋지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8 조선일보 5월 6일 6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그 아버지는 구두쇠로 유명하니만치 자금 한 푼을 주자 아니함으로 여러 번 담판하고 출가까지 하여 위험하였스나 아모 효과가 업섯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1 동아일보 6월 12일 4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監司가 구두쇠가 돼서 돈 때문에 喪禮를 疎忽히 하는 것을 비웃은 것이다.

現代어 풀이

감사가 구두쇠가 돼서 돈 때문에 상례를 소홀히 하는 것을 비웃은 것이다.

66 문헌 용례

인근 주민들은 간혹 **李씨** 부부의 근면함을 평하여 함경도의 **굳으쇠**의 근성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의 부부는 부지런하고 남의 손이라곤 좀처럼 빌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구두쇠에 관한 주석

19세기에 인색하다를 뜻하는 ‘굳다’가 나온다. [예] 굳다 鄙吝. 堅吝<1896 국한회어 곤: 41>##‘구두쇠’가 ‘굳-’과 ‘-쇠’가 결합한 단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쇠’가 결합한 단어들 중 ‘마당쇠’, ‘덜렁쇠(덜렁대는 사람)’, ‘밥쇠(밥만 축내는 사람)’나 사람 이름인 ‘돌쇠’ 등은 명사나 부사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구두쇠’와 차이를 보이고, 사람 이름인 ‘먹쇠’ 등은 ‘먹-’과 ‘-쇠’ 사이에 모음이 들어가지 않는 점에서 ‘구두쇠’와 다르다. 따라서 ‘구두쇠’를 ‘*굳을쇠’의 구조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형용사 ‘굳-’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결합한 ‘굳을’과 ‘-쇠’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굳을쇠’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구드쇠’가 되고 제2음절의 ‘ㅡ’가 제1모음 ‘ㄱ’에 동화되어 ‘ㄱ’이 된 것이 ‘구두쇠’라는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는 ‘구두’와 ‘쇠’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때 ‘구두’는 ‘구두쇠’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구두’이다. ‘누를 黃(황)’을 ‘누루 황’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게 ‘*구드’에서 ‘구두’로 변화하고 여기에 ‘-쇠’가 결합했다고 보는 것이다.##‘구두쇠’를 ‘구두의 굽 밑에 박는 쇠’로 보는 민간 어원도 있다. 서양의 어떤 부자가 구두를 오래 신기 위해 구두에 쇠를 박아 다녔는데 그 소리가 요란하여 그 사람을 ‘구두쇠’로 불렀다는 것이다. 구두에 쇠를 달고 다니면 구두가 잘 닳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구두쇠’로 본 것이지만 ‘구두’가 20세기에야 알려진 데 비해 ‘구두쇠’가 19세기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구두쇠’를 작두나 협도(鋏刀) 따위의 머리에 가로 끼는 것으로, 날과 기둥을 꿰뚫는 끝이 굽은 쇠를 뜻하는 ‘고두쇠’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두쇠’와 ‘고두쇠’는 의미적으로 멀고 19세기에 인색하다를 뜻하는 ‘굳다’가 있으므로 ‘굳다/굳다’에서 왔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 ‘구두쇠’와 동일한 뜻을 지닌 ‘굳짜’도 ‘구두쇠’가 ‘굳다/굳다’에서 왔다는 방증이 된다.

구두쇠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무림 2020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 홍운표 2003 ‘구두쇠’의 어원 《새국어소식 통권 62호》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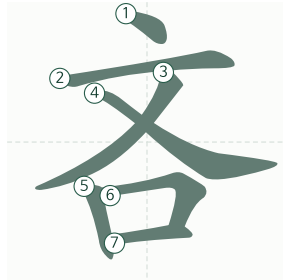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구두쇠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1 / 4 · 19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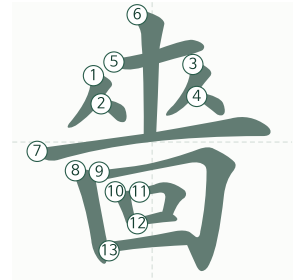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吝 뜻·음 아낄 린
총 7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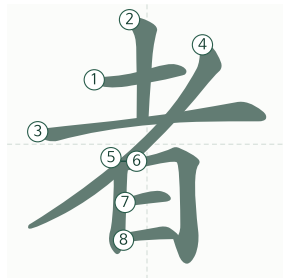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吝/

齋 뜻·음 아낄 색
총 13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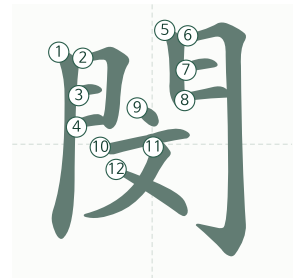
者 뜻·음 늙 자
총 9획 · 부수 老



사전 9획 · 획순 그림 8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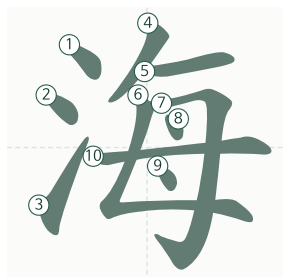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者/

閔 뜻·음 성(姓) 민
총 12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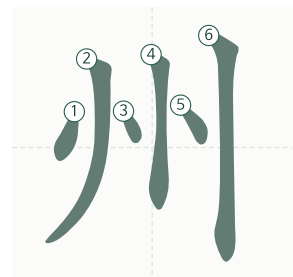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閔/

海 뜻·음 바다 해
총 10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海/

州 뜻·음 고을 주
총 6획 · 부수 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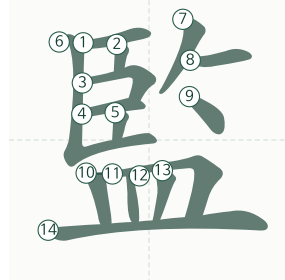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州/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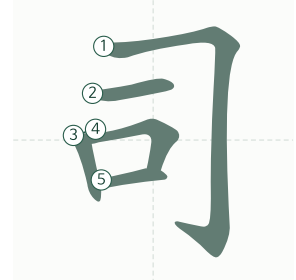
뜻·음 볼 감
총 14획 · 부수 皿



hanja.wordrow.kr/한자/監/

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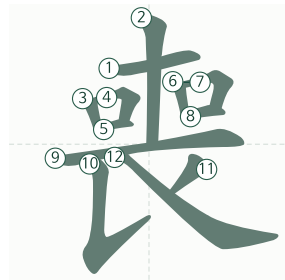
뜻·음 말을 사
총 5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司/

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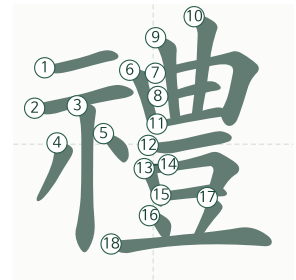
뜻·음 잃을 상
총 12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喪/

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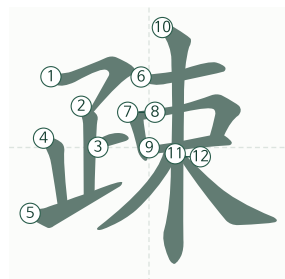
뜻·음 예도 례
총 18획 · 부수 示



hanja.wordrow.kr/한자/禮/

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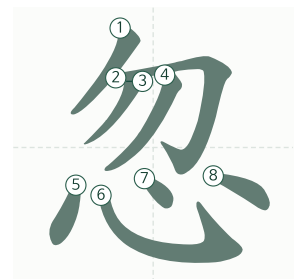
뜻·음 성길 소
총 12획 · 부수 乇



hanja.wordrow.kr/한자/疎/

忽

뜻·음 갑자기 홀
총 8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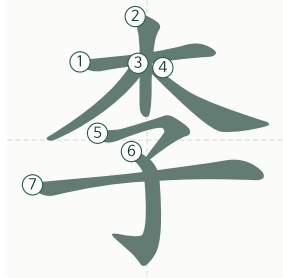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忽/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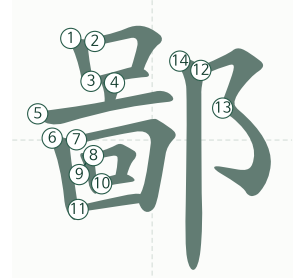
뜻·음 오얏·성(姓) 리
총 7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李/

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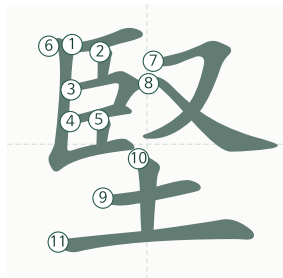
뜻·음 더러울 비
총 14획 · 부수 畀



hanja.wordrow.kr/한자/鄙/

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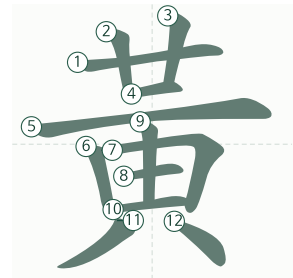
뜻·음 굳을 견
총 11획 · 부수 土



hanja.wordrow.kr/한자/堅/

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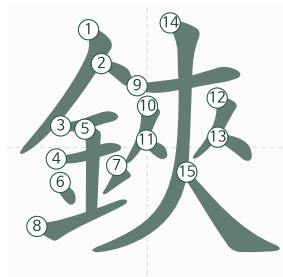
뜻·음 누를 황
총 12획 · 부수 黃



hanja.wordrow.kr/한자/黃/

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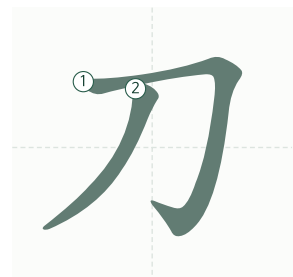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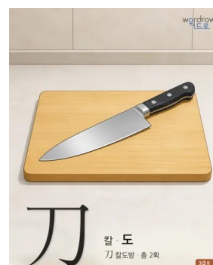
뜻·음 가위 협
총 15획 · 부수 金



hanja.wordrow.kr/한자/鉗/

刀

뜻·음 칼 도
총 2획 · 부수 刀



hanja.wordrow.kr/한자/刀/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金

뜻·음 쇠금 / 성(姓) 김

총 8획 · 부수 金

본문 金



金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金/